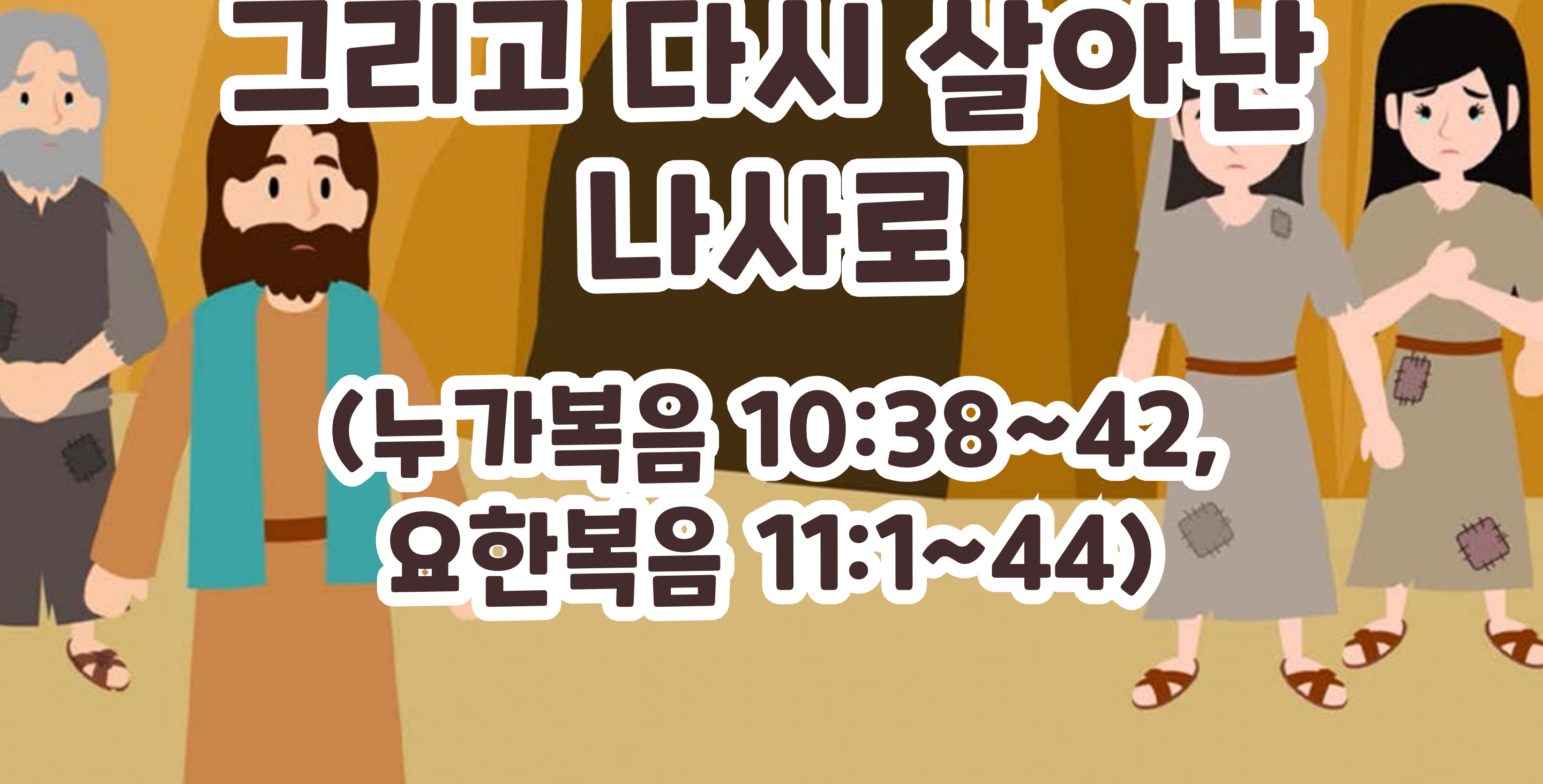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91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

(누가복음 10:38~42,  
요한복음 11:1~44)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행을 하시다가  
‘베다니’라는 마을을 방문하셨어요.  
베다니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었죠.

그 마을에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마중 나갔죠.

**“예수님! 저와 제 동생이 사는 집에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르다의 초대에 응하셨어요.  
마르다의 집에 가보니  
집에는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너무나도 듣고 싶었습니다.”

한편 부엌에 들어간 마르다는 너무나도 분주했어요.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신 오늘만큼은 아끼지 않고  
대접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어휴 정신없어. 할 일이 산더미네..!  
마리아! 음식 준비를 좀 도와주겠니?”**

참다 못한 마르다가 부엌을 나가보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만  
열심히 귀 기울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마르다는 순간 화가 나서 예수님께 다가갔답니다!

**“주님! 저 혼자서 이 모든 준비를 하고  
제 동생은 저를 돕지 않고 있는데 어찌 이 아이를  
가만 내버려 두시나요?  
저를 도와라고 한 말씀 해주시지 않구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음식 준비를 거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건 착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마르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이 많아  
안절부절 못 하는구나.  
하지만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은 한 가지 뿐이란다.  
마리아는 말씀이 꼭 필요해  
그 쪽을 택하였으니 그걸 누구도 막을 수 없단다.  
마르다야, 너도 같이 하려무나.”**

**예수님의 말씀에 찌푸리고 있던 마르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마르다는 알게 된 거죠.**

**마르다는 즉시 마리아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예수님께서서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로아 지방에 계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헉헉.. 예수님~!!! 저는 베다니 마을의  
마르다가 보낸 사람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 가고 있습니다요! 그 사람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태연하게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한 병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소식을 전한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베드로 형님,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번엔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그러게 말이다. 더군다나 그토록 아끼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데..”**



그렇게 이틀이 더 지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베다니 마을로 가자꾸나.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 하지만 주님, 굳이 그 위험한 길을  
나사로가 잠이 들어 있다면  
알아서 금방 일어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정말로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죠.

“나사로가 죽었다. 이번 일로  
너희가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했어요.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아시는 걸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베다니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가 보니, 정말로 나사로는  
이미 4일 전에 죽어 있었고 돌무덤 속에 묻힌 상태였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왔어요.

“주님, 주님께서 저희 마을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야,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서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향하셨습니다.  
슬픔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죠.  
그 모습을 본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나보요.  
저리 눈물을 흘리시니.”

“그러게 진작에 좀 오시지.  
앞 못 보는 사람도 보게 만드는데 분이  
나사로가 죽는 건 왜 못 막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무덤 입구 앞에 서셨어요.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죠.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입구를 열면 안 좋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마르다야,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입구의 돌을 치우자 예수님께서서  
힘차게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모두가 숨 죽인채 열려있는 무덤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오모나! 세상에....!!!”**

사람들의 탄성과 함께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무덤에 들어갔을 때처럼 온몸에 천이 감겨 있었지만  
분명히 나사로는 살아 있었죠!

슬픔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 기뻐 감사드렸죠.

나사로의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